

표선면

하천리

표선리

토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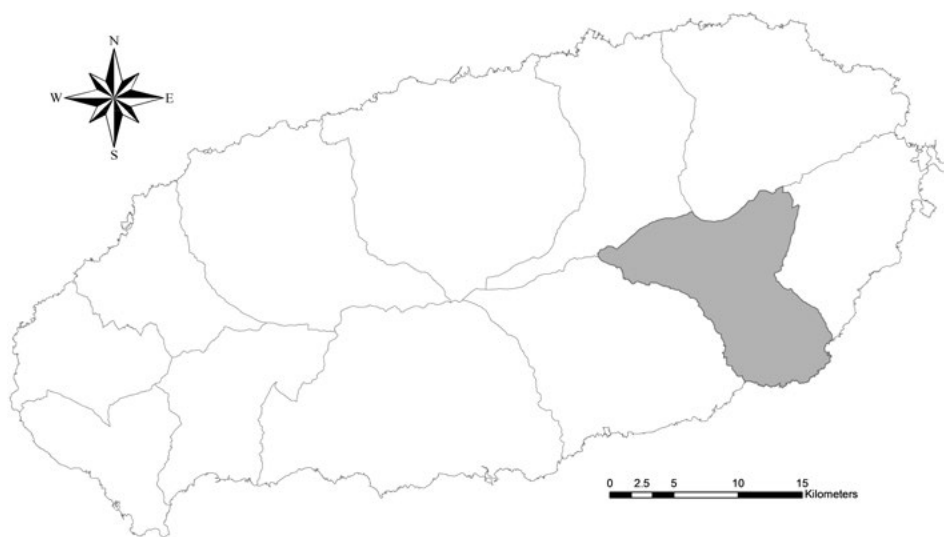
서귀포시 표선면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동남부에 위치하며, 면적은 135.172km²이다. 인구는 2019년 11월말 기준으로 6,060세대 12,318명이고(외국인 제외, 남자 6,354명, 여자 5,964명), 하천리, 표선리, 세화1리, 세화2리, 세화3리, 토산1리, 토산2리, 가시리, 성읍1리, 성읍2리의 10개리로 이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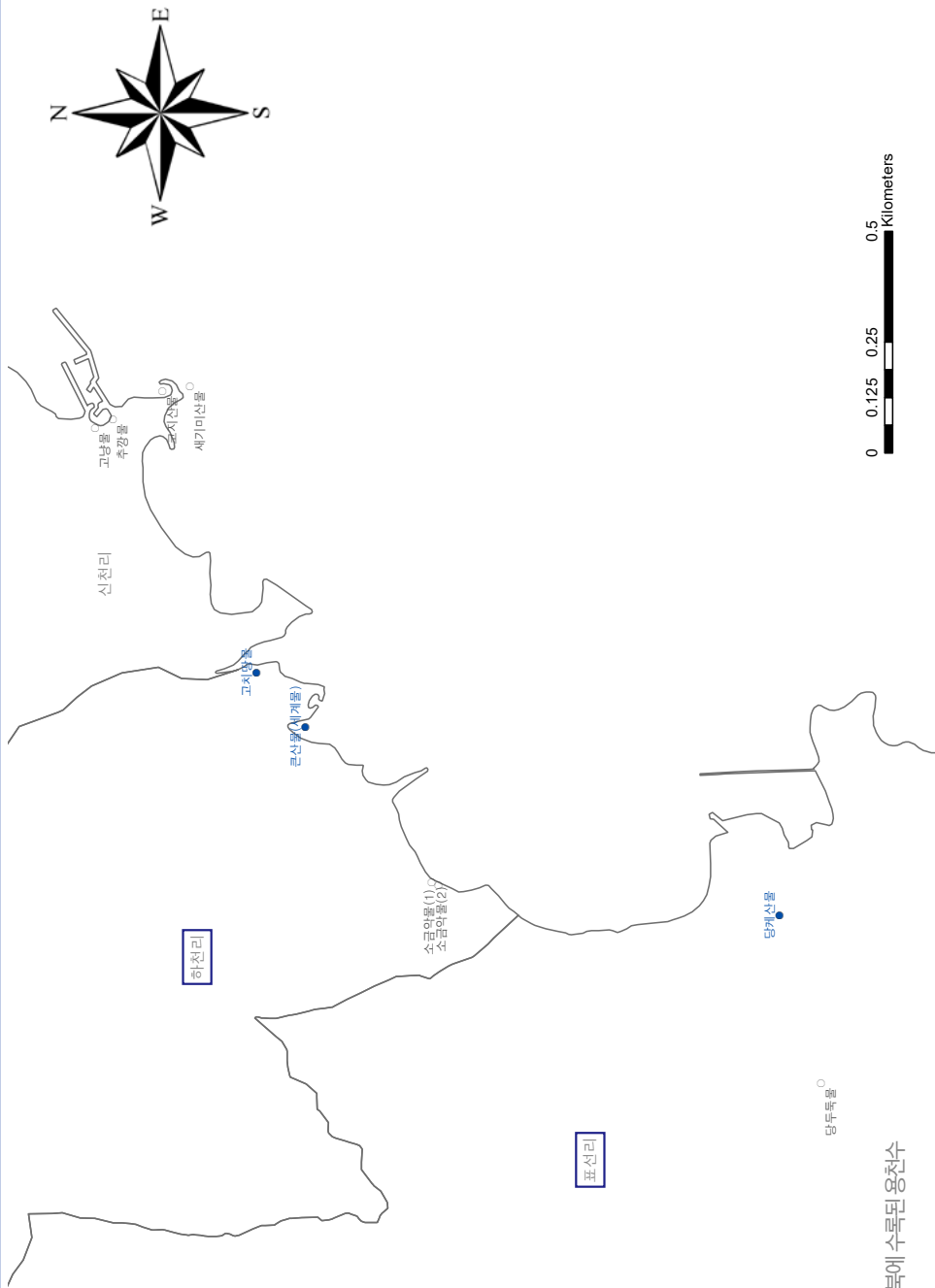
출처 : 서귀포시 홈페이지(<http://www.seogwipo.go.kr/>)

동쪽은 천미천(川尾川)을 경계로 성산읍과 인접하고 있으며, 서쪽으로는 송천(松川)을 경계로 남원읍과 접하고 있다. 북서쪽은 표고 200~300m 내외의 광활한 초지대와 산지를 이루고 남동쪽으로 갈수록 지대가 낮아지면서 바다와 면하고 있으며, 예로부터 목축업이 발달하여 지금도 대규모 목장들이 있다.

주요 관광지로는 성읍민속마을을 비롯하여 표선해비치해변, 제주민속촌박물관, 대한항공 정석항공관 등이 있고, 녹산로 일대 10km에 이르는 유채꽃 길과 코스모스 꽃길, 영주산·파라비오름의 산책로 시설 등 생태체험공간을 마련함으로써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자연 및 문화유산 자원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출처 :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하천리, 표선리 용천수

고치땅물

표선면 하천리 천미천 하류(바닷가)
X(E) 126°50'58.14" / Y(N) 33°20'12.75"



배고픈 다리 및 암반에서 솟아나는 물

‘고치땅물’은 천미천의 끝자락과 바닷물의 경계 지점에 설치된 수증보의 역할을 하는 배고픈(凹形) 다리 밑에서 자연적으로 솟아오르는 용천수다. 천미천 하류에는 고씨 할머니를 당신으로 모시는 고칫당이 있는데, 그 부근에서 솟아나는 용천수를 고치땅물이라 부르고 있다.

올레길 3코스를 걷다보면 천미천의 배고픈 다리를 지날 때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인다. 배고픈 다리를 지날 때 바다 쪽 암반 사이를 유심히 살펴보면 바닥에서 용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하천개수공사 등으로 산물이 많이 축소되었다. 만조 시에는 바닷물이 덮이고 간조 때는 물이 바로 바다로 빠져 나가버리는 특성이자. 때문에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별도의 보호시설이 없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다. 예전에는 목욕물이나 우마용 먹는 물로 사용했었다.

제주물소리북



큰산물

표선면 하천리 포구 옆 바닷가
X(E) 126°50'52.06" / Y(N) 33°20'09.85"



하천리 포구 서쪽 옆으로 용천수가 솟아나는 3곳 모두를 합쳐서 ‘큰산물’이라 부르며, 하천리에 있는 용천수 중 용출량이 가장 많은 곳이다. ‘큰산물’은 3통이 있는데 해녀탈의장 바로 아래 물통은 식수로 이용되기도 했고, 아래 바닷가 쪽 산물통은 해녀들과 지역주민들이 여름철 목욕하는데 이용했다. 큰 물통은 남성들이, 작은 물통은 여성들이 이용해 왔다. 백중 때는 이웃마을 주민들까지 모여들어 두 물통이 사람으로 가득 찼다고 한다.

자연석으로 경계시설을 조성하여 지금도 목욕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제주물스토리북



당케산물

표선면 표선리 바닷가 포구 안
X(E) 126°50'37.37" / Y(N) 33°19'34.73"



이 마을에서는 설문대할망을 세명주할망 혹은 설맹디할망이라 한다. 이 곳은 설문대 할망이 토목공사로 조성한 곳이라는 구전이 전해지고 있어 '당케 세명주할망당'이라 불리는 당이 있다. 바로 근처에 물이 있어 '당케산물'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당케라는 말은 당이 있는 바닷가(개)란 의미로 당케 또는 당케라고 한다. '당케산물'은 당케포구(일명 당포)라 했던 마을 사람들이 식수와 기타 생활 용도로 사용했으며, 제수로도 사용했다. 경계돌담을 쌓아 남녀가 구분하여 목욕탕으로 이용하기도 했었다.

몇 년 전에 물을 두 칸으로 나눈 사각 시멘트구조물로 보호시설을 만들어 보전되고 있었다. 물이 솟는 곳 갯담 안쪽 모퉁이에 두 칸으로 보호시설을 만들고 바다 쪽은 남탕, 바다 안쪽은 여탕으로 구분하였지만, 파도에 경계돌담이 무너져서 지금은 시멘트 흔적만 남아 있고 아무런 관리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포구 안 구석에서 솟아나는 이 용천수는 밀물 때는 역시 바닷물에 잠겨 위치를 확인 할 수 없고 썰물 때만 모습을 드러낸다.

거سن새미

표선면 토산리 1307-1

X(E) 126°45'55.52" / Y(N) 33°19'16.86"



한라산을 향해 거슬러 흐르는 물

이 마을에 있는 거سن새미와 노단새미는 호종단이 물혈을 끓으려 했던 단혈전설이 전해지는 마을의 정신적인 물이다. 거سن새미는 한라산을 향해 거슬러 흐른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며, 토산봉이라는 오름의 서쪽 낮은 오름에서 용출하여 바다로 흐르지 않고 한라산을 방면으로 흐르는 역천수(逆泉水)로 유명하다.

예전에는 물의 위치에 따라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상탕(거سن새미 1)은 마을제 등에 쓰는 귀한 물로 이용하고, 중탕은 식수(거سن새미 2), 하탕(상탕, 중탕에서 흘러 내려온 물을 받아놓은 곳)은 우마용, 빨래 등으로 사용하였다. 예전에는 이 물을 이용해서 토산에서 유일하게 논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2009년 집수시설, 경계시설을 갖추도록 정비하여 유원지로 복원하였다. 그리고 거سن새미라고 쓴 표석을 세우고 '상수도시설이 되기 전에는 인근 마을(가시·세화·신흥리 등)의 주요한 생활용수로 사용되었으며, 조상들이 물을 지켰던 지혜와 행기무덤과 함께 거سن샘 물신인 영천수신(靈泉水神)을 기리기 위해 복원하였다'고 새겨 놓았다.



노단새미

표선면 토산리 1249

X(E) 126°45'51.72" / Y(N) 33°19'05.04"



축복받은 마을로 만들어준 산기슭에서 흘러내리는 물

‘노단’이란 ‘오른, 바른, 옳은’을 뜻하는 오른쪽을 일컫는 제주어다. 노단새미는 토산봉에서 거센새미와는 반대 방향으로 바닷가 쪽 정방향으로 흐른다고 해서 노단새미이라 부르고 있다. 용천수는 대부분 바닷가에서湧출되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바닷가에 비해 편리한 중산간에서 용천수가 솟으면 그 마을은 축복받은 마을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토산리 주민들은 이 물을 신성시 했고 산기슭에서 흘러내리는 물이라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엄히 관리했다.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제주민들의 심성이 용천수 혈을 끊으려는 호종단의 행위를 교묘하게 피해가는 전설도 만들어 냈다. 예전에 제사에 사용하는 제기들은 낫그릇을 이용했는데, 낫사발 같은 홈에서 물이 솟아난다는 표현으로 행기소 물이라고도 부른다.

지금은 영천사에서는 용천수를 끌어들여 연못을 만들고, 서귀포시에서는 탐방객들이 쉴 수 있도록 정자와 족욕탕 등을 조성하여 소공원으로 만들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마을의 용천수처럼 형체도 알아 볼 수 없게 개조한 것이 아니라 처음 그대로의 노단새미를 보전한 것이다.



산열이통물

표선면 토산리 바닷가
X(E) 126°47'00.37" / Y(N) 33°18'21.66"



물이 차고 좋아 땀띠를 없애고 목욕을 하며 더운 열을 식히던 물

토산2리 바닷가에 위치하며 용암빌레(너럭바위)의 언덕 밑에서 특이하게 용천수가 솟구치고 있다. 궤에서 솟기 때문에 통물이라 하고 있으며, 토산리 바닷가에 궤처럼 생긴 동굴 같은 바윗집에서 용출된다. 동굴의 크기는 너비 1.8m, 높이 0.6m 정도다.

‘산열이통물(산아리통물)’은 다른 용천수보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고 용출량이 많아 식수 등 생활용수로 주로 사용해 왔다. 백중날에 이 물로 물맞이하면 무병장수한다고 전해지며, 지금도 여름철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용천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예로부터 명수(明水)의 조건은 반드시 힘찬 용의 기운을 받아야 한다. 남토리(남쪽에 있는 토산리란 의미) 바닷가에도 바위 궤(동굴의 제어어)에 용트림 하듯 숨겨진 귀한 용천수가 있다. 토산2리 바닷가인 토산개에 있는 물인 ‘산열이통물’이다. 근처 봉용코지(곶[串])는 지형지세가 용트림하기 위해 용이 엮드려 있는 형국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 나오는 용의 기운을 받고 용출하고 있어 충분히 명수라 할 만하다.



너븐개

표선면 토산리 2리 바닷가

X(E) 126°47'06.52" / Y(N) 33°18'21.70"



빨래를 주로 했던 세담통

토산리 앞바다는 만이 넓어서 너븐개라 부른다. 산열이통물에서 동쪽으로 약 200여 미터 지점의 너븐개에서 솟아나는 용천수를 그냥 '너븐개'라 부르고 있다. 주민들은 인근에 있는 산열이통물을 많이 이용하였고, 이 '너븐개'에서는 주로 빨래를 했었다.

커다란 바위로 경계시설을 만들어 파도에도 훼손되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다.